

논문 6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

김 경 식* · 이 현 철**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진로결정수준 변화의 패턴을 살펴보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진로결정수준 변화의 양상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선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721(p<.001)$ 로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의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크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변화율의 증가 폭이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자기효능감, 개인고민, 진학계열, 비행, 진로관련대화, 학업성취 등이며,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율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기효능감, 진학계열, 비행, 진로관련대화, 학업성취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간경과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와 그 양상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와 변화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학력사회의 한 단면으로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 상승은 경제적으로 사회의 불안 야기와 사회적인 침체 요인이 되어 사회전반에 고통분담을 지우게 된다. 한국노동연에서 금년도 실업률을 3.4%정도로 관측하고 있지만(한국노동연, 2007), 청년 실업률은 8%에 이르고 실업자 수는 100만에 달한다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지옥같은 고 3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4년 후 또 한번의 취업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 요즘 세태가 되고 있다(최인아, 2007).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부는 청년 실업대책으로 연간 7,573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에 4,851억원이 지출되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도 대부분 여성과 노인들을 고려하면, 청년실업자를 위한 비용은 연간 8,000억원을 전후 할 정도로 지출하고 있다(<http://blog.naver.com/jelim0119?Redirect=Log&logNo=100040485396>).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업의 심각성은 고등학생들이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교육과 복지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실업문제를 꼽은 것에서 잘 보여준다. 기획예산처가 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17일 ‘청소년 재정학교’를 개최해 재정지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35%)와 복지분야 지출(35%)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실업, 저성장 중 실업(39%)이 가장 높았으며 양극화(30%)가 그 뒤를 이었다(경향닷컴, 2007).

이처럼 청소년의 고민을 다룬 연구들은 진로문제가 청소년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밝히고 있다. 진로선택이 개인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청소년의 주요 관심사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선택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창(1994)은 그 이유로 입시위주의 지도, 부모위주의 진로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진로지도의 불합리성 등을 들고 있다(하기봉, 2001 재인용).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청소년층의 진로 탐색과 진로와 관련된 정보인식의 수준은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황여정, 2007). 실제로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의 고교생 1만1천여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학생의 희망직업은 17개에 집중돼 있었으며, 전체 1만2천여개 직업 가운데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100개 안팎에 지나지 않고 있어 진로결정과 탐색에 다양한 수준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학교 대하여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겨레 2007.7.15).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불명확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영위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탐색과정을 거쳐서 확고한 진로가 결정된 후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에 진로지도는 중학교 수준에서 1차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로지도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진로지도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2).

중학교시절 진로지도가 부실한데는 고등학교가 목표가 아닌 대학을 목표로 둔 학생·학부모의 특이한 진로의식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잘못된 선택을 낳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중학교의 진로진도는 고교 입학을 위한 지도로 전략한지 오래며, 진학지도도 학교성적 등을 고려하여 성적에 맞는 학교에 합격시키는 것이 주가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며 또 진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진로결정수준 변화

의 패턴을 살펴보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층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접근 경로를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탐색

가. 진로 지도와 진로 결정

진로(career)는 한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일, 여가, 환경, 심리적 만족과 관련된 모든 활동 포함한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7). 과거에는 진로를 직업과 동의어로 취급하였지만,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의 직업적 발달도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직업과 구분하는 추세다.

진로는 진학이나 취업, 직업의 선택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과 그 내용을 가리키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박완성, 2006; 박재홍·유연숙, 2006). 이러한 진로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진로 탐색 및 선택은 개인 내적인 자아실현의 본질적인 혹은 협의적인 의미 이외에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다 광의적인 측면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진로지도는 취업지도나 직업안전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상급학교의 진학지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학교에서 전개되는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개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 총체적인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토대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리고 흥미 있는 일의 분야를 선택하고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 되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0).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진로선택은 직업선택과정이 핵심이 되므로 진로교육은 직업결정이 긍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고교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계열별로 이루어졌으며, 진로의식과 진로선택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왔다(조재천, 1991).

진로지도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3대 요소로 하여(강현량, 2000),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김정길, 1993)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진로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할 줄 알게 함으로써 잠정적인 장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하기봉, 2001)

진로지도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진로결정은 “현재 상태 이후의 자신의 진로의 방향성 설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전공선택, 취업 및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김봉환, 1977). 즉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직업가치관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황여정, 2007), 미래의 직업결정과 고교졸업 후 진로결정을 의미한다(신희경·김우영,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을 진학/취업, 희망전공, 직업 등의 결정여부와 직업관련 정보획득과 확신,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로 교육포부 수준 등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¹⁾.

나. 진로결정 요인

청소년의 진로 결정이 개인 관련 변수, 가정 관련 변수, 학교 관련 변수, 그리고 직업 관련 변수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전개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 1>과 같다.

<표 1> 진로 결정 요인

영역		요인
개인	특성	연령, 성, 능력, 적성, 지능, 흥미, 자아개념, 신체적 조건, 학문적 욕구, 진로관, 가치관 등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 경험, 동아리활동
가정	구조적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경제력, 종교, 문화시설, 형제수, SES, 결혼가정 여부, 가정학습 분위기, 가족내 서열, 결혼계획 등
	사회심리적	부모와 본인의 교육포부, 부모의 관심과 격려, 중요한 타자의 영향,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형제관계 등
학교	물리적, 구조적	학교시설, 진로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학년, 학교계열
	사회심리적	교우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교사와의 친밀도, 학교분위기(학교풍토, 학급풍토) 등
	성취	학업성취(인지적, 정의적)
직업		직업세계의 변천, 고용시장, 봉급수준, 직장환경, 보너스, 발전가능성, 휴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 직업명성 등

그동안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결정, 진로선택, 진로성숙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들을 탐색해왔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개인특성 변인으로 자아개념 관련 요인, 가정변인으로 SES와 부모와의 관계, 학교변인으로 학업성취와 교사와의 관계로 집약된다. 그 한 예로 정운경(2005)은 진로성숙에 대한 설명력에서 개인 특성 변인은 자아관, 고민, 걱정거리, 학교급(계열), 체육과목 성취 등의 순이며, 가정관련 변인의 특성은 부모와의 대화, 학생의 희망전공과 바람의 일치 순이며, 학교특성은 존경하는 선생님,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나

1) 신희경·김우영(2005)은 진로결정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직업, 진학/취업, 희망전공, 구체적 직업에 대한 결정여부, 정보, 확신, 준비행동 여부와 같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수업시간 흥미도 등의 순임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어느 특정 한두 요인의 결정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외재적) 요인에 포함되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개인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결정이 라 하겠다.

3.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과 학교 행정가 및 교사 그리고 가구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분석하였다.

진로결정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진학 및 계열이 구분되는 시점인 2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1,778명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 1,76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인문계열과 전문계열로 각각 73%, 27%로 진학하였다.²⁾ 본 연구는 결측 자료로 인해 각 변수에 따라 사례수가 다르게 측정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변인 유목		빈도(명)	비율(%)	계(명, %)
성별	남학생	882	50.1	1,759 (100)
	여학생	877	49.9	
아버지 학력	미취학무학	60	3.4	1,756 (100)
	초등학교	116	6.6	
	중학교	219	12.5	
	고등학교	874	49.8	
	대학교(전문대포함) 대학원(석박사)	429 58	24.4 3.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47	9.3	1,576 (100)
	100-200 만원	657	41.7	
	200-300 만원	453	28.7	
	300-400 만원	166	10.5	
	400 만원 이상	153	9.7	
학교 계열	인문계열	1,287	73	1,764 (100)
	전문계열	477	27	

2) 종합적인 진로결정수준 변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인문계열과 전문계열 모두를 고려하였으며 종단적인 자료 추적을 통해 최종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 패널(1,778명) 중 14명(0.8%)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였다.

나. 연구 모형 및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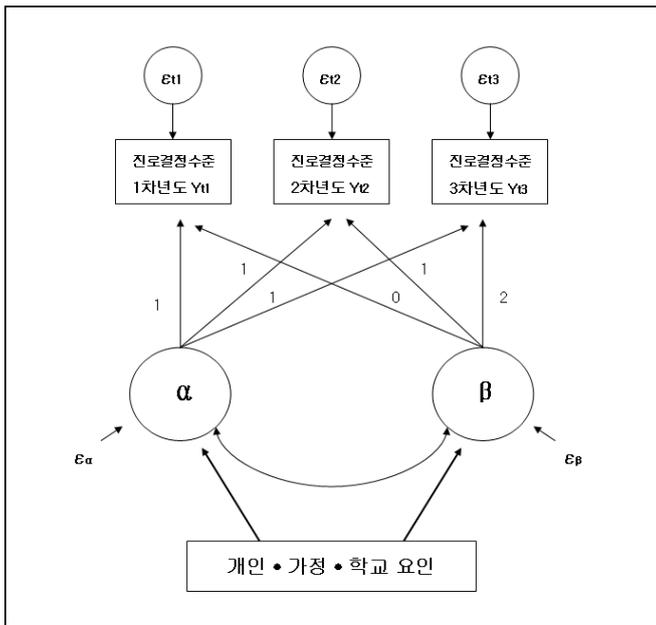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단적인 자료의 변화를 추정하고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개인의 변화와 차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설정된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이기봉·박일혁, 2001; 정소희, 2006; 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잠재성장모형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t = \alpha + \lambda_t \beta + \epsilon_t$$

$$\begin{aligned} Y_{t1} &= \alpha + \lambda_{t0} \beta + \epsilon_{t1} \\ Y_{t2} &= \alpha + \lambda_{t1} \beta + \epsilon_{t2} \\ Y_{t3} &= \alpha + \lambda_{t2} \beta + \epsilon_{t3} \end{aligned}$$

반복 측정된 변수 Y 에 대하여 α 는 개인의 초기값을 나타내는 수치고, λ_t 시간단위의 기본 수치이며, β 는 변화율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정도이다. 그리고 ϵ_t 각 시점의 관찰 되지 않은 측정 오류를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1차년도 부터 3차년도 까지의 측정치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진로결정수준 변화 측정 연구 모형으로 설정한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진로결정수준 변화 연구 모형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수준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인지, 결정사항 인지’ 문항으로 개인 내재적 변인을 설정하였고 신뢰도는 .601, 사례수는 1,760 이다. 그리고 개인 고민과 스트레스 영역으로 ‘자신의 성격, 가정, 친구, 진학, 학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 정도로서 신뢰도 .660 사례수는 1,764 이다. 그리고 패널조사가 3년 동안 진행됨에 따라 연구대상 학생들의 고교 진학 유형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인문계열과 전문계열(실업계)로 구분되어 진학함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들과 전문계열 학생들간의 개인·가정·학교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학 유형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진학 유형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비행 변수도 통제하였다. 비행 변수는 자살고민, 흡연, 성관계, 가출, 징계를 합산하여 그 정도를 투입하였다.

가정 수준 변인으로는 부학력과 월평균 소득, 진로관련대화, 부모관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부학력은 미취학·무학에서 중·고·대, 대학원(석·박사)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 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응답한 자료를 Log값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진로관련대화는 부모님과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적성과 흥미, 진로 선택, 진로 정보’와 관련된 대화 합산으로서 신뢰도 .587 사례수 1,764이다. 부모관여 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대화정도, 성적관심, 친구인지, 친구 부모 인지’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36, 사례수는 1,664 이다.

<표 2> 변수와 변수 특성

변 수	특 성
자기효능감	자아인지 4문항(적성, 흥미, 가치, 결단)
개인고민	개인 고민과 스트레스 5문항(성격, 가정, 친구, 진학, 학업)
진학계열	인문계열(=1)/전문계열
비행	비행문항(자살, 흡연, 성관계, 가출, 징계) 합산
부학력	미취학·무학, 초·중·고,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학원 교육연한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300-400만원, 500만원이상, Log값
진로대화	부모와의 진로관련대화 합산
부모관여	부모관여 4문항(대화정도, 성적관심, 친구인지, 친구부모인지)
학업성취	주요 과목 학업성취 정도
학교생활 및 풍토	학교생활, 수업시간, 의사반영, 학습 분위기
진로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 관련 문항 합산/ 1-3차년

학교 수준 변인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요인과 학교생활 및 풍토, 진로지도 변인을 활용하였는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주요 5개 과목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에 대한 학생들이 지각한 성취 정도를 활용 하였으며 신뢰도는 .686, 사례수는 1,760이다. 학교생활 및 풍토 변인은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수업시간의 흥미도, 학생들의 의사 반영, 학교의 공부할 분위기 형성’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639, 사례수는 1,760이다. 학생들의 진로결정 안내를 위한 학교 내 진로지도 변인은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상담’의 만족도로서 설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56, 사례수는 287이다.

2) 진로결정수준 변화 함수

<표 3>에 제시된 1차년도에서부터 3차년도까지 세시점의 진로결정수준 변화 패턴을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³⁾

설정된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무변화 모형 즉 진로결정수준 변인이 3년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은 선형 변화모형에 비해 χ^2 값이 크고, 표준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상관적합지수 RFI(Relativ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IFI(Incremental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가 모두 낮아 적절한 모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 변인의 평균값(<표 3>)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3년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무 변화모형보다는 각 측정 시점 간의 변화를 가정한 선형 변화모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형 변화모형의 경우는 진로결정수준 변인이 3년간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정한 모형으로서 동일한 측정간격을 통해 진로결정수준 변인의 선형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모형이다. 선형 변화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χ^2 값이 624.387로 작고, 모형의 적합도 또한 양호하여 무 변화모형에 비해 진로결정수준 변화 패턴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표 4>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chi^2(df)$	NFI	RFI	IFI	CFI
무 변화모형	1881.109(7)	.812	.839	.813	.813
선형 변화모형	624.387(4)	.938	.907	.938	.938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된 선형 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초기치의 평균은 11.954($p < .001$)로 실제자료의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106($p < .05$)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 요인은 매년 평균적으로 .106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치의 평균 11.954($p < .001$)와 변량 3.798($p < .001$), 변화율의 평균 .106($p < .05$)과 변량 1.999($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 진로결정수준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학생들 간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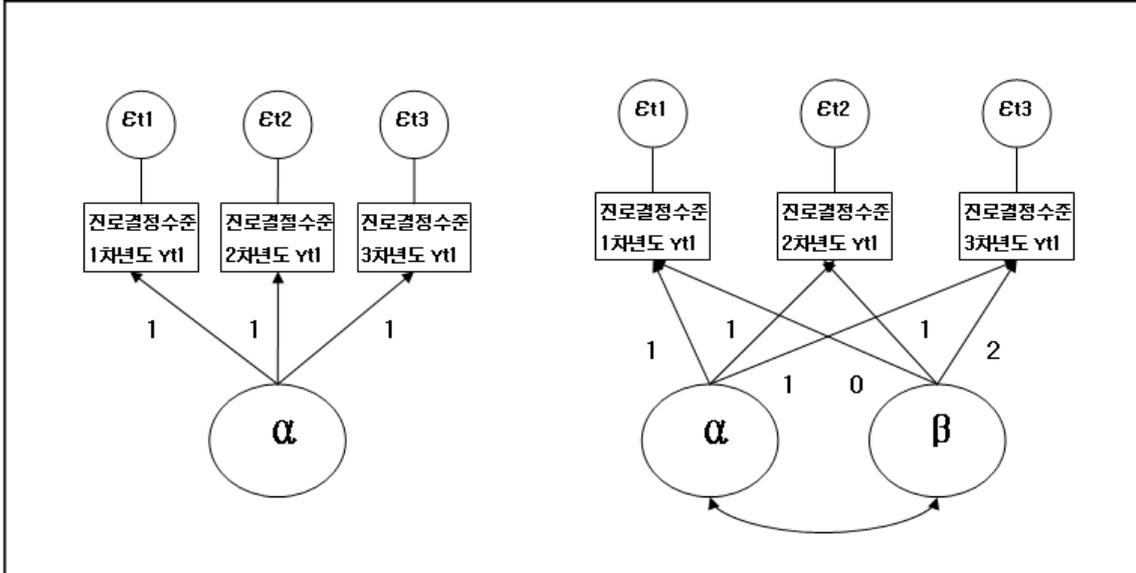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721(p < .001)$ 로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의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크기가 높을 록 진로결정수준 관련 요인의 증가 폭이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매년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으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부적인 상관관계로 인해 1차년도의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높았던 학생들은 이후로 갈수록 진로결정수준 관련 요인의 증가 폭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며, 초기 시점의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낮았던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비선형 변화 모형도 설정이 가능하나 비선형 변화 모형의 경우 네시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 모형만을 적용하였다(이수진·홍세화·박중규, 2005).

<표 5> 진로결정수준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변화율 상관
초기치	11.954**	.063	3.798**	-.721**
변화율	.106*	.049	1.999**	

*p<.05 **p<.001



[그림 2]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

3) 진로결정수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형 변화모형을 통해 진로결정수준 요인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패턴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⁴⁾ 진로결정수준 변화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⁵⁾를 투입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학업성취, 자기효능감, 개인고민, 비행, 진학계획, 진로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 내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에 .403(p<.001)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결단력은 초기 시점의 진로결정 관련 요인에 주요한 영향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290, p<.001)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이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학생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증가폭의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았던 학생들의 경우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증가폭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기술하였으며 좀 더 자세한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과정과 방법에 관한 것은 Bollen & Curran(2006)의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중 Chapter 8 “Extensions of Latent Curve Models”을 참고하기 바란다.

5) 진로결정수준 변화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투입된 자료는 1차년도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개인 수준에 있어 학생의 비행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초기치에 $-.182(p<.001)$ 로 나타나 학생들의 비행은 초기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단적인 추적 결과 1차년도에 비행이 높았던 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증가 폭이 증가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환경과 요소들을 접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요인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고민은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090, p<.05)$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삶에 대한 애착과 진지함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가정 요인으로 설정된 진로관련대화(초기치: $-.169, p<.001$, 변화율: $.129, p<.001$)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각각 $-.169(p<.001)$, $.129(p<.001)$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부모-자녀간의 진로관련 대화는 학생들의 초기치 형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변화율에는 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로관련대화를 제외하고 가정요인인 부모관여, 부학력, 월평균 소득은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요인 형성과 변화에 있어 부모들의 역할 부재와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들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는 영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사회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과 접근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사회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요인인 학업성취, 진학계열이 진로결정수준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에 학업성취는 $.258(p<.001)$ 로 영향을 주고 있어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초기 시점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실제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교진학시 성적이란 잣대에 맞춰서 진로가 결정되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진학계열의 경우 초기치에 $.589(p<.001)$ 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인문계열(=1)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 전문계열(실업계) 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율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지지되고 있다 $(.167, p<.001)$. 즉 학생들의 진학 계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수준의 초기치 형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불평등 기제로서의 진학계열 따른 사회 재생산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고생이 중학생이나 실업고생에 비해 진로개발성과변인에 대한 학습경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윤형한·이지연·김나라, 2005),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정윤경, 2005에서 정리한 자료 참고)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진로교육이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현행 학부모·학생들의 진로 결정 문화, 즉 대입에만 최종적인 목표를 둔 학생·학부모의 특이한 진로의식(하기봉, 2001)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학교풍토와 진로지도의 영향은 예상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진학계열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학교풍토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한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관련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진로결정수준 영향 요인

요 인	초기치			변화율		
자기효능감	.403**			-.290**		
개인고민	.090*			-.042		
진학계열	.589**			.167**		
비행	-.182**			.103**		
부학력	.010			.021		
월평균소득	-.050			-.004		
진로대화	-.169**			.129**		
부모관여	.007			-.029		
학업성취	.258**			-.219**		
학교생활 및 풍토	-.065			.025		
진로지도	.082			-.051		
적합도	$\chi^2(df)$	NFI	RFI	IFI	TLI	CFI
	11055.31(484)	.926	.914	.929	.918	.929
SMC	초기치: .318 / 변화율: .535					

* $p < .05$ ** $p < .001$

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전국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진로결정수준 변화의 패턴을 살펴보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층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접근 경로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종단적인 진로결정수준 변화의 양상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선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가 $-0.721(p < .001)$ 로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진로결정수준 요인의 크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관련 요인의 증가 폭이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매년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치와 변화율의 부적인 상관관계로 인해 1차년도에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높았던 학생들은 이후로 갈수록 진로결정수준 변화율의 증가 폭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며, 초기 시점의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낮았던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 중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자기효능감, 개인고민, 진학계열, 비행, 진로관련대화, 학업성취 등의 6가지였으며,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율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기효능감, 진학계열, 비행, 진로관련대화, 학업성취 등의 5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고민은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일반적인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의 변화와 그 양상이 개인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관련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의 초기치와 변화 결정의 영향 요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진로결정에 있어 학교성적에 맞춰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바,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조기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Sharf(1992)가 “자기탐색과 자기 이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측면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자기 탐색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해와 자기효능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진로관련대화)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진로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본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진로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진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량(2000). 진로지도를 위한 적성, 흥미 교과성적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향닷컴(2007). 고등학생들 “실업,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입력: 2007년 08월 20일 14:59: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201459221&code=940401.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의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길(1993). 진로교육의 장학방법과 역할. 문교행정, 문교부.
- 박광택.1999. 부모의 직업변화가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2006. 진로탐색행동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관련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9(3). 23-39.
- 박재홍·유연숙.2006. 교육서비스품질이 서비스만족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전문대학 비서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24(2). 33-60.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97-323.
- 윤형한·이지연·김나라(2005). 청소년의 진로개발 영향요인 및 성과 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673-705.
- 이기봉·박일혁.2001. 종단적 운동수행력의 변화 분석: 잠재성장모형의 이용. 한국체육학회지 40(2). 885-897.
- 이수진·홍세희·박종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정소희.2006.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가정, 개인,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49-292.
- 조재천(1991).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광장(1997). 진로상담 모형개발. 청소년대화의광장 12.
- 하기봉.2001. 진로결정 과정의 학부모와 학생 문화 탐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90). 진로교육연구보고서.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17(1). 131-158.
- 청년실업 8과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http://blog.naver.com/jelim0119?Redirect=Log&logNo=100040485396>. 2007.8/19 출력.
- 최인아(2007). 아침논단: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 입력: 2007.08.19 22:4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9/2007081900693.html.
- 한겨레.2007. 산골학교에 무지개꿈 활짝 피던 날. 2007/7/15(<http://www.hani.co.kr>)2007/ 8/20 출력.
- 한국노동연(2007). “올 하반기 고용 늘 것” 국정브리핑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5910§ion_id=117&menu_id=117. 2007/8/19 출력
- Bollen & Curran.2006. *Latent curve models*. WILEY, John Wiley & Sons, Inc.
- Sharf, R. S.(1992).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Abstract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career decision and its chang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and its change in Korean youth and use a sample from KEEP(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3) data.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First,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youth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ed with linear transformations. Also,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cept and slope of career decision level is statically significant(-.721); it means that if the factor of intercept of career decision level is height, an increasing rate of slope will be reduced.

Second,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s shows that self-efficiency, source of anxiety, entrance system into higher grade, juvenile delinquency, dialogues with parents on their child entr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found to be a sta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intercept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elf-efficiency, entrance system into higher grade, juvenile delinquency, conversation with parents on their child entr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fluencing slope of career decision level.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youth in Korea is linear tendency and various factors such as self-efficiency, source of anxiety, entrance system into higher grade, juvenile delinquency, dialogues with parents on their child entr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much more influential on student's career deci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improve family environment, school careers programs and encourage to students who had trouble in career decision